

민주 박혜자·송갑석 경선 리턴매치... 평화당 김명진 출사표

광주 서구갑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예비후보와 송갑석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바다 민심을 훑으며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명진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대항마로 나섰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는 송갑석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월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박 예비후보와 송 예비후보 간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의원직을 지내고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안 서구갑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민심을 다져왔다. 조선 국회의원이지만, 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고,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정 및 대표발의를 통해 이를 관철시킨 독실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광주발전 공



박혜자 위원장



송갑석 전 부실장



김명진 전 행정관

민주 박혜자·송갑석 일찌감치 표심 다져

평화당 김명진 공약 내세우며 민심잡기

약사업 9개 중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 도시 육성,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및 7대 문화권 사업,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현 부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제안했던 만큼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송갑석 예비후보도 2년 전 '녹색 돌풍'에 쓰러린 패배를 경험한 뒤 지역에서 외신상담하며 바다 민심을 다져왔다. 송 예비후보는 광주의 대표적 386세대로 꼽힌다. 서슬퍼런 군부독재

시절인 199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지방대학 최초로 제4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역임하며 전국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분이 깊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아 대선을 치렀다.

송 예비후보는 '광주를 광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표밭잡이를 하고 있다. 그는 광주의 현안사업과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앙정부와 함께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명진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표심을 다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치며 당 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만 6차례 역임하는 등 국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김명진의 4대 약속'으로 선거법 철저 준수, 금품향응 제공 안하기, 흑색 비방 안하기, 정쟁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상무소각장 부지에 들어설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에 국제적 규모의 시립도서관 건설, 상무지구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신속한 추진, 중앙공원의 명품 국가 도시공원 1호 시범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1% 싸움... 민주 경선 누가 이길지 관심

김명진 "1대 1맨 해 볼 만"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후보 경선과 민주당 대 민주평화당 후보 간의 대결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박혜자 예비후보와 송갑석 예비후보는 2년 만에 다시 당내 경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다.

2년 전 당내 경선에서는 송 예비후보가 50.9%로 현역 의원인 박 예비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밀려 국민의당 후보였던 송기석 전 의원에 고배를 마셨다.

박 예비후보는 2년 전 설욕을 다짐하고 있고, 송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에서도 필승을 다지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의정 경험과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관리를 꾸준히 해온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송 예비후보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386세대와의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당내 386 세대 중심인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과 함께 1980~1990년대 학생운동을 이끄는 등 민주화 동지들이다.

평화당의 반격도 관전포인트다. 평화당은 광주가 지역기반인 만큼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가 될 경우 한판 승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열린 김명진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지지세 확장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 지지를 격차가 너무 큰 만큼 선거일까지 정당 지지를 줄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예비후보는 '일당 독주는 오판과 독선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 국회의원·고위관료 등 도전장... 민주-평화당 혈투 예고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영암·무안·신안에서는 6·13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입지자들의 행보가 분주해졌다.

이 곳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사활을 건 혈투가 예상된다.

이 선거구에는 국회의원고 고위관료 등 다양한 경력의 인사들이 후보군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삼석(59)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과 김홍걸(55) 국민통합위원, 백재욱(54)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당에서는 이윤석(58) 전 국회의원, 이진태(52) 변호사, 민영삼(58)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우기종(62) 전남도 정부부지사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지난 총선에서 박준영 전 의원에겐 석패한 서삼석 위원장은 설욕을 버리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서 위원장은 "현정의 민심은 농수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아 실망하고 있다"며 "농어민들에게 민망하고 부끄럽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현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안 출신의 백재욱 전 행정관도 예비후



김홍걸 통합위원장



서삼석 지역위원장



백재욱 전 행정관



이진태 변호사



이윤석 전 국회의원



민영삼 연구원장



우기종 정부부지사

민주당 김홍걸·서삼석·백재욱 출사표

평화당 이윤석·이진태·민영삼... 무소속 우기종 출마 검토

보 등록과 함께 보복을 넓히고 있다. 백 전 행정관은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해 국제도시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선박설계·생산기술·R&D 분야 등 핵심기술을

육성해 침체된 대불산단을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위원장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름이 회자되고 있

다. 여권 일각에서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도 "그 곳(신안)이 아버지 고향"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주화해협력법국민회의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의원이 유력하다. 평화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있던 이 전 의원은 지역구 행사 등에 얼굴을 보이며 사실상 선거전을 준비해 왔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경선에 나섰던 이진태 변호사는 고향인 영암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주요 요직을 맡았고, 국민의당 기초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영암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 지역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일꾼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로 민영삼TV를 운영하는 민영삼 원장은 평화당 중앙당에서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중평방송의 인기 논객으로 활동했다.

신안 출신인 우기종 부지사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다. 우 부지사는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서 "처음 가는 길이고 혼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배·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평화-민주, 수성이나 탈환이나

민주후보 전략공천 관심

남약신도시 표심이 변수

'수성이나, 탈환이나'를 놓고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혈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녹색 돌풍(국민의당)'에 휘말리면서 영암·무안·신안지역을 빼앗겼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치권이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민주당은 원내 1당이 위태로운 처지다. 지역구 탈환이 절실한 이유다.

반면 평화당은 수역원의 공천한금을 받은 박준영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최근엔 정의당과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면서 의석 1석이 아쉬워졌다. 지역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정치 라이벌인 민주당 서삼석 지역위원장과 평화당 이윤석 전 의원의 3번째 맞대결도 성사될 지 관심이다. 서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19·20대 민주당 경선

에서 맞붙었다. 성적은 1승1패로 비겼다. 이번 재선거에서 2명 모두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다면 라이벌 최종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술술 나오는 전략공천설은 뜨거운 감자다. 재선거의 특성상 중앙당이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평화당이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지, 누구를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략공천을 할 경우 지역민들의 반감과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 남약신도시와 영암 대불산단을 끼고 있는 삼호읍 등 신도시 유권자 공략도 변수다. 남약신도시(삼향읍) 유권자는 2만1720명(지난해 대통령선거 기준)으로, 무안 전체 유권자의 32.9%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 삼호읍은 유권자가 1만3580명으로, 영암 전체 유권자의 28.8%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외지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h3>영광주택매매(급매)</h3> <p>전원주택(영광읍)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주인직매 010-6670-9800</p>	<h3>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h3> <p>·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p> <p>·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p> <p>▶ 매가 8억 5천만</p> <p>① 월곡동.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②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p> <p>010-7384-7800 010-6670-9800</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3> <p>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p> <p>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비됨)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p> <p>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 → 최저 16억9천</p> <p>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p> <p>5) 광산구 수암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p> <p>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p> <p>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p> <p>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p> <p>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p> <p>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p> <p>11)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p> <p>1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p> <p>A.P.T·주택·공장·토지 (기타)</p> <p>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p> <p>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p> <p>③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p> <p>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빌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p> <p>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p> <p>⑧ 광산구 삼가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p> <p>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p> <p>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p> <p>010-6670-9800 062)382-5500</p>	<h3>경매교육 (3월초 개강)</h3> <p>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p> <p>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p> <p>3) 경매 평생반 ▶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p> <p>경매물건 추천</p> <p>① 북구 용평동 (12층중 7층상가) 주치원비 (실명시 100평)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4억6천</p> <p>② 서구 치평동 해광한신 (24평) 감정가 1억5천8백 → 최저가 1억1천</p> <p>③ 서구 마죽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백</p> <p>[배우면서 컨설팅가능(경험자환영)] 사무실 프리 근무하실분</p> <p>010-6670-9800 062)382-5500</p>
--	--	--	--